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3월 1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택시물류과	담당자	• 택시정책팀장 박 성 오 ☎440-3801 • 담당자 김 홍 수 ☎440-3803		
<b>사진</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도서지역 100원 행복택시가 달린다~!

- 3월 중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 운행 개시 예정 -
- 1인당 이용횟수 월 2회, 향후 대상자 확대 예정 -
- 고령·영세·거동불편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개선 기대 -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촌마을 교통취약지역인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 4개 면에서 공공형택시인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 3월 중 현재 진행중인 옹진군 개인택시 이용 운임 현실화를 위한 택시요금 확정안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운행을 개시한다.
- 행복택시는 고령·영세·거동불편 주민이 이용 대상이며 이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콜) 요청하여 해당 마을에서 승차 후 목적지까지 이동 한 뒤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 100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 나머지 운행 요금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1인당 이용횟수는 월 2회이고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대 예정이다.

- 시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강화군과 웅진군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여 소형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우선, 강화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주민 수요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10개 읍·면에 13개 노선 9대의 공공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기존 군내버스요금과 동일하다.
  
- 지난해 공공형 버스 이용자는 85,847명이 탑승해 강화군의 주 생활권인 강화읍으로 이동 시 환승의 불편함을 덜고, 이동시간이 절약되어 주이용객인 고령층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웅진군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한 웅진군 소청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등 4개 섬지역에 100원버스(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작년 한해 섬 주민들 15,453명이 이용했다.

- 올 1월에는 울도에 1대를 추가 확대하여 총 5개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행복택시 운행으로 4개 면 도서지역 수혜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및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은 단순한 교통서비스가 아닌 작은 농촌 마을이 고립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사회적 연결망”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